

6장 사랑하라, 한 번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

●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. 네 눈이 맑을 때에는 온 몸이 환하고, 성하지 못할 때에는 몸도 어둡다. (루카복음 11장 34절)

몸의 등불인 눈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기

“군자는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, 스스로 진실을 알려는 자이다.” ----- 눈어

바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. 그럼에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. 무릇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?.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.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된다.